

아름답고 호젓한 산책길... 그 길을 걷고 싶다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슬슬 거닐다

박여진 지음

완도에는 장도라는 섬이 있다. 통일신라시대 장보고가 해상무역의 본거지로 삼았던 청해진이 곳에 있었다. 지난 1991년부터 2001년까지 두 차례의 발굴을 통해 우물, 유구 등을 복원했다. 청해진 유적지는 육지와는 200여 m 떨어져 있다. 이곳을 연결하는 것은 다름 아닌 목교. 외성문을 통해 유적지 안으로 들어서면 완만한 언덕을 따라 산책로가 이어진다.

섬은 그리 크지 않아 족히 한 시간이면 돌고도 남는다. 산책로를 거닐다 높은 언덕에 올라 저편을 보면 파란 바다가 보인다. 해상 왕국을 건설하고 독자적인 무역을 도모했던 장보고의 기상과 꿈이 푸른 바다 너머로 넘실거리는 것 같다.

장도는 산책하기에 좋은 섬이다. 게으름을 피우듯 슬슬 걸다보면 장소가 지닌 가치를 알게 된다. 그리고 보면 산책은 오직 인간만이 행하는 활동 가운데 하나다. 마음 가는대로 발걸이 닿는 대로 걸으며, 경치를 감상하고 스스로의 상념에 젖을 수 있다. 딱히 설명이 필요 없는, 움직임 그 자체로 힐링을 느낄 수 있는 행위가 바로 산책이다.



우리나라 아름다운 산책길을 소개한 책 '슬슬 거닐다'는 남다른 시선과 풍경을 담고 있다. 다산초당에서 백련사 가는 길, 덕수궁 돌담길, 행주산성과 수변 산책로, 강진만 생태공원 등 모두 34곳을 소개한다.

번역가이자 작가인 박여진은 주중에는 번역을 하고 주말과 휴일은 그렇게 산책 여행을 떠난다.

책에는 그동안 저자가 걸었던 산책길에 대한 단상이 오롯이 담겨 있다. 저자는 지금까지 한 번도 같은 길을 걸은 적이 없다고 한다. 그 말의 의미는 이렇게 바꿀 수 있다. "같은 길이라도 그때마다 날이 달랐고, 바람이 달랐고, 우리가 달랐다. 걷다 보면 걸어온 길이 과거처럼 따라오고, 걸어야 할 길이 미래처럼 이어진다."

산책길 가운데 오래도록 눈길이 머무는 곳은 '벗에게 가는 길'이다. 다산초당에서 백련사 가는 길은 정약용과 해장스님을 이어주는 길이다. 황사영 백사건으로 유배돼 강진에서 18년을 살았던 다산은 마음을 풀어줄 벗이 필요했다. 그는 쓸쓸하거나 외로울 때면 백련사에 거거하는 해장을 찾았다. 그를 만나 한 잔의 차를 마시며 마음을 다스리고 위안을 받았다.

크고 작은 나무들이 뽀뽀이 들이선 그 숲길을 거닐었을 때 다산의 마음이 읽혀진다. 오르막과 내리막이 반복되는 길은 풀벌레 울음과 산새 울음이 가득하다. 다산이 오랜 유배를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저 숲길 때문이었을 것이다. 숲길에 드리워진 수다한 생명들의 소리는 그의 내면을 다독여주는 파스한 위로였을 것이다.

저자는 거진항의 산책로가 주는 운치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 흰 등대로 이어지는 산책로에서 바라보는 바

는 낭만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삶의 무늬가 드리워져 있다. 역설적으로 구체적인 현실을 생각하게 한다. "영킨 그물을 다듬는 어부"와 "뿔뿔이는 생선과 그 생선을 다듬는 상인들"의 풍경은 이내 우리 삶의 모습으로 치환된다.

파주 출판단지의 작은 길들도 파사로운 풍경과 어울린다. 서로 다른 건축물 사이에서 존재를 알려오는 다양한 생명들은 일상속 작은 깨달음을 준다. 습지인 갈대갯강을 중심으로 나뉘어진 다양한 길은 이런저런 생각을 정리하거나 혹은 떨쳐버리기에 좋은 길이다.

통도사 무똥한솔길이 주는 여운도 만만치 않다. 일주문에서 대웅전에 이르기 위해 거쳐야 하는 무똥한솔길은 고찰의 명성을 고스란히 대변한다. 바람처럼 굽은 소나무와 짙은 소나무 길로 들어치는 햇볕은 자연이 베푸는 은전에 다름아니다.

이밖에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 유명했던 덕수궁 돌담길, 임진왜란의 역사가 깃든 행주산성과 수변 산책길, 파로호 인공습지, 탐진강과 강진만이 만나는 곳에 자리한 생태공원도 소개돼 있다.

운치 있는 글과 함께 사진이 백홍기가 찍은 사진들을 보는 맛도 쏠쏠하다. 하나하나 표정이 살아 있는 자연은 현자의 모습처럼 다가온다.

<마음의 숲·1만5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산책은 경치를 감상하며 혼자만의 사색을 즐길 수 있는 힐링의 시간이다. 사진은 풍경이 아름다운 강진만 생태공원. <마음의 숲 제곱>



이여령의 마지막 수업

김지수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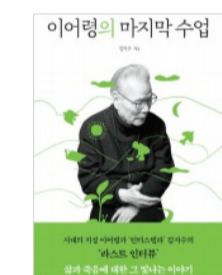
지난 2019년 가을 "이번이 내 마지막 인터뷰가 될 거예요"라는 말이 담긴 '김지수의 인터스텔라'에 '이여령의 마지막 인터뷰'가 나가고 사람들은 이여령의 메시지에 환호했다. 당시 "마 이 라이프는 기프트였다"는 선생의 말에 많은 이들이 감동했다. 이후 선생의 더 깊은 이야기를 담기 위한 인터뷰가 이어졌고 마침내 한 권의 책이 발간됐다. '이여령의 마지막 수업'이 그것.

27번째 기자라는 업을 이어오고 있는 김지수는 문화전문기자다. 2019년 이여령 선생의 인터뷰가 나가고 난 후 다시 1년여에 걸쳐 열여섯 번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한마디로 이번 책은 우리 시대의 대표 지식 이여령이 마지막으로 들려주는 삶과 죽음에 대한 지혜로운 이야기이다.

오랜 암 투병으로 죽음을 옆에 둔 선생은 사랑, 용서, 종교, 과학 등 다양한 주제를 넘나들며 이야기한다. 특히 "죽음이 생의 한가운데 있다는 것"을 전하는 선생은 남아 있는 세대에게 삶의 지혜를 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여령은 자신의 죽음이 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내 육체가 사라져도 내 말과 생각이 남아" 있으니 "그만큼 더 오래 사는 셈"이라는 말에서 깊은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한편 김지수 기자가 인터뷰를 하면서 밝힌 이번 책의 의미는 '작별인사'라는 표현로 그 글에서 보다 깊이 찾을 수 있다. "마지막을 써내려가는 지금까지 나는 이 책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다만 이 책이 아름답고 고독한 생애를 살았던 스승이 당신의 기슭에 안기는 마지막 꽃 한 송이로 기억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열림원·1만65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나비가 돌아왔다

이시영 지음

만해문학상, 백석문학상, 정지용문학상, 지훈문학상, 박재삼문학상 등 유수의 문학상을 수상하는 등 자신만의 문학세계를 견고하게 일궈온 이시영 시인. 1969년 중앙일보 신춘문예 시조 부문에 당선되고 같은 해 '월간문학' 신인작품공모에 시를 발표한 이래 50년 이상 꾸준히 작품을 발표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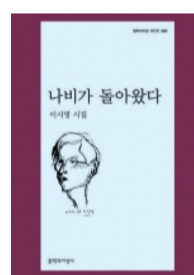
이 시인이 신간으로는 4년 만에, 문학과지성 시인선에 시집을 보낸 지 27년 만에 시집을 발간했다. '나비가 돌아왔다'는 단상을 스케치하는 짧은 작품이 많이 수록돼 있지만 시에는 통렬한 세계 인식과 때론 메시지가 담겨 있다. 시집 제목 '나비가 돌아왔다'는 문명의 세계에서 순수함을 찾고자 하는 화원을 나비의 날개로 치환한 것이다.

작품 가운데 눈에 띄는 작품은 '박꽃'. 그리운 시절과 아련한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시는 우리에게 잃어버린 소중한 그 무엇을 환기한다.

"나는 박꽃이 있는 여름 시골집이 좋았다/ 박꽃은 넝쿨을 타고 올라가 초가지붕 위에 커다란 박들을 굴렀다/ 가을이 오면 저것들은 폭포수처럼 뒤 속이 텅 빈 바가지가 되어/ 겨우내 정지간 시령 위에서 덩그렁덩그렁 울릴 것이다"

고향 풍경과 당시를 회상하는 화자의 심상에선 그리움이 곡진하게 묻어난다. 시골을 고향으로 둔 이들에게는 한번쯤 떠올려볼만한 풍경들이다.

한편 김주연 문학평론가는 "병든 아픈 역사적 내상과 시인 자신의 상처를 말없이 함께 포개어가면서 반세기 넘도록 조용히 시업에 매진해온 이시영 시인의 원숙은 우리 민족서정시의 전통 위에서 아득한 의미 있는 성취임이 분명하다"고 평한다.



<문학과지성사·9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글 쓰는 딸들

소피 카르캥 지음, 임미경 옮김

작품을 통해 또 글쓰기에 대한 태도를 통해 우리를 사로잡은 세 작가가 있다. '연인'의 작가이며 다양한 글쓰기 실험으로 문학계의 중심에 있었던 마르그리트 뒤라스, '여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라는 명언을 남긴 여성학의 고전 '제2의 성'을 쓴 시몬 드 보부아르, 여성의 욕망, 관능을 담은 작품에서 독창적인 존재방식을 찾아낸 시모니 가브리엘 콜레트.

이들의 삶과 작품에서 어머니의 영향을 추적한 책이 출간됐다. 프랑스의 기자이자 작가인 소피 카르캥이 쓴 '글 쓰는 딸들'은 '어머니'를 글쓰기의 출발점으로 삼은 세 딸과 삶으로서의 글쓰기 여정에 딸과 동행한 세 어머니의 이야기다.

세 사람은 시간상으로 앞서거나 뒤선 차이는 있지만 19세기 말, 20세기 전반기를 공유했다. 이들에게는 시대에 맞선 저항자라는 점 외에도 덜 알려진 한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삶은 물론 작품에까지 강력한 영향을 미친 '어머니'가 있었다는 것. 뒤라스의 어머니 마리 도나디외, 보부아르의 어머니 프랑수아즈, 콜레트의 어머니 시모. 이 어머니들은 균형을 깨거나, 지나쳐서 넘치거나, 모든 것을 감싸서 끌어안으려 했다. 그들은 딸을 사랑했다. 무척 사랑하거나, 과도하게 사랑하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사랑했다.

'마르그리트 뒤라스와 마리 D.: 양면적 사랑', '시몬 드 보부아르와 프랑수아즈: 지배하는 사랑', '콜레트와 시모: 융합하는 사랑' 등 세 개의 카테고리 구성된 책에는 세명의 딸이 작가 이전에 한 인간으로 각자의 현실에서 어머니와 수십년간 엮어내려 간 기쁨과 슬픔, 애정과 원망, 배반과 화해의 이야기가 담겼다. <창비·1만6000원>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